

자기가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끼'가 필요하다. 협회의 구심점으로서 역동적이면서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상수도팀. 최태용 팀장 이하 이송희 부장, 윤여천, 이연미, 강준구 사원 등 '끼' 많은 팀원들의 신명나는 일터로 가보자. (*이송희 부장은 출장 중으로 불참)

협회의 '기' 살리는 '끼' 많은 상수도팀



글 윤종환 · 사진 곽동근



역동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상수도팀

상수도팀은 한국상수도협회의 여러 팀 중에서도 맡고 있는 업무 영역이나 인원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팀이다. 그러다보니 개개인의 역량을 110%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팀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상수도팀의 분위기는 역동적이다. 그러면서도 팀원들끼리 협조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다른 팀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나다. 한마디로 서로 챙기고 아끼는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팀이 상수도팀이다. 협회의 출범과 함께 기술부로 업무를 시작한 후 2003년 2월에 기술1, 2부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고, 올 1월부터 기술지원처 소속의 상수도팀, 하수도팀으로 정비되었다. 기술지원처는 말 그대로 회원들에게 상·하수도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는 상·하수도의 구분 없이 기술적인 지원활동을 하다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수도팀과 하수도팀으로 나누어졌다.

상수도팀은 환경부에서 위임받은 인증사업을 비롯하여 지자체에서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가서 기술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또한 협회 회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협회지 등을 통해서 기술 정보를 보급하고, 외국 기술서적들을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다.

높아진 협회의 위상에 보람 느껴

상수도팀의 업무 성과는 협회의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초창기만해도 회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단적인 예로,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기술지원 업무를 하면서 만나는 공무원들에게 협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조직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는 경우도 있었고, 회원들에게 협회가 생긴 과정과 준비하고 있는 활동들을 설명해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회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회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 막연하게 불만을 드러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협회가 있어서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적어도 상·하수도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협회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협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자체든 개인사업자든 간에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협회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곧 상·하수도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협회에 대해서 막연하고 단기적인 안목으로 채근하고 요구할 때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간의 어려움에 대해서 최태용 팀장은 이렇게 토로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펼친 결과 협회의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다. 지자체 공무원을 만나면 협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회비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것을 넘어서 ‘협회에서 해주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회비 수입이 그 규모를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회비를 더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저런 수익 사업으로 협회의 재정을 늘리자고 제안하는 회원까지 있다. 대외적으로 외국의 협회와 협의하여 업무 협조를 할 때도 처음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크게 협조적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협회를 한국의 상수도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3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협회가 발전하면서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고, 업무적으로도 역량이 강화 됐다는 걸 피부로 느낄 때 상수도팀원들은 보람을 느낀다.

상수도팀의 끼는 서비스 정신과 자기 개발

신명나게 일하는 상수도팀의 첫 번째 끼는 서비스 정신에 있다. 협회라는 것이 여러 다양한 집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협회가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회원들의 이익도 대변해주고 그들의 어려움도 풀어주는 것이 협회 상수도팀의 할 일이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협회 업무라는 것이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회원들이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는지 항상 살피고 실천해야 협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팀장 이하 팀원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다.

“대외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많고 업무 협의하는 사람도 많다보니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전달할 때도 상냥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테크닉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한 일단 조직이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헌신적인 자세로, 열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이연미 사원의 말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끼는 자기개발이다. 최태용 팀장은 ‘본인의 발전이 없으면 협회의 발전도 없다. 항상 깨어있으면서 자기에 대한 투자,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부분은 팀원들도 항상 자각을 하고 있어 자기시간을 쪼개어 대학원에 다니거나 휴일에도 필요한 자료라면 탐독하여 자기자식 충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팀원들 각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을 보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업무는 물론이고 업무 외의 사적인 부분까지도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는 상수도팀. 그들이 있어 협회의 앞날이 더욱 든든하게 느껴진다. 



Association

